

‘무지개 샷다’와
오방색의
상관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Rainbow
Shutter’*
and the Five
Cardinal
Colors

윤서진
Yoon Seojin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전공
BFA Program, Visual Communication Design,
Hongik University

1. 들어가며
2. ‘샷다’의 유래와 변천
3. 알루미늄 셔터의 도입과 색상 변화
4. 오방색과 전통 신앙이 반영된 셔터 디자인
5. 나가며

지도교수: 고선정

Supervisor: Ko Sunjung

1. 들어가며

늦은 저녁, 전통시장을 거닐다 보면 많은 가게가 셔터를 내린 채 다양한 색상 배열을 자랑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셔터들이 각기 다른 배열을 하고 있지만, 대체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의 조합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독특한 색상 조합은 언제부터 사용되었으며, 그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에서 이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 색상 조합은 흔히 '무지개 샷다'라고 불리며, 한국의 고유문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오방색'을 반영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무지개' 줄무늬가 셔터에 적용된 시점과 이 디자인이 셔터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새로운 물질의 등장은 새로운 디자인을 창출하고,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인식과 생활양식에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셔터의 줄무늬 디자인이 단순히 미적인 요소를 넘어 한국 전통문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탐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무지개 샷다'는 단순한 기능적 요소를 넘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 일상과 전통이 어떻게 공존하는지, 공존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데 이 연구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Introduction

Walking through the traditional market late in the evening, many shops have their shutters down and boast a variety of colors. All these shutters have different arrangements in color, even though they typically share a combination of red, yellow, and blue. This study was initiated by some questions about the uniqueness, for instance, when the color combination was employed and what was behind it. This color combination is called Rainbow Shutter. It reflects Five Cardinal Colors, which is a unique traditional color set in Korea. The relationship between this shutter design and the Five Cardinal Colors hooked me at some points. This study initiated to understand that relationship. The goal is to examine the exact time and motivation of the rainbow stripe on the shutters, what function this serves in shutters, and the impacts it has had. It will be meaningful to explore how the striped design of shutters is connected to Korean traditional culture rather than simply understanding it as a functional or aesthetic element. The emergence of new materials often leads to new designs and changes the perception and lifestyle of those who use them. I hope this study will help us better understand how tradition and modernity coexist in our culture and how the phenomenon affects our contemporary society. Rainbow Shutters had a role in conveying emotional sharing, revealing new cultural characteristics on the narrow alley.



[그림 1] 함석 덧문(출처: https://blog.naver.com/sequl_store/221042624139)

2. '샷다'의 유래와 변천

'샷다'라는 용어는 영어 단어 'shutter'에서 유래된 것으로, '문 등을 닫다'라는 의미의 'shut'에 행위를 하는 주체를 나타내는 접미사 '-er'이 붙어 형성된 단어이다. 이로써 'shutter'는 창문이나 문처럼 여닫을 수 있는, 움직이는 벽 또는 문의 일종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에서 수입된 셔터(シャッター)라는 단어가 중장년층과 노년층 사이에서 여전히 널리 사용되고 있다. 셔터는 철판을 발(簾) 모양으로 연결하여 감아올리거나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¹⁾ 셔터의 기본적인 용도는 방범과 방화, 방풍 등이며, 많은 건물에 설치되어 사용된다. 셔터의 시초는 1837년에 나무판자로 만들어졌으며, 강철로 만든 것은 1880년경 영국의 클라크(Clark)와 버넷 앤 컴퍼니(Burnett

& Co.)에 의해 발명되어 일반화되었다. 초기에는 주로 범죄 예방용 또는 블라인드 대용으로 사용되었다.

한국에서는 셔터가 보급되기 이전인 1950년대까지 철로 만든 함석 덧문[그림 1]을 가게 문에 덧씌워 화재 확산과 도난을 예방했다. 이때 사용된 함석 덧문은 서너 개에서, 많게는 10개 이상의 얇은 철판으로 구성되었으며, 천막이나 자물쇠로 문을 닫던 상점들에 변화를 가져왔다. 192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한국일보》와 《조선일보》를 살펴본 결과, '샷다'라는 단어는 1960년 12월에 처음 등장했다.²⁾ 이는 공장에서 '샷다'가 대량 생산되기 전까지 시장 주변의 공업사에서 자체 제작된 제품이었다. 9년 후 한일건재공업에서 '한일 스프링 샷다' 광고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근대화에 맞춘 대량 생산 제품으로서의 홍보가 시작되었다.

1) 셔터,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2) 「'샷다'를 三分之二(삼분지이)를 내렸다는데...」, 《조선일보》, 1960.12.19.

韓一建材工業(株)は 日本과의 技術提携로 堅固하고 永久的의 壽命을 保障하는 아름다운 스프링 샷다를 開發 했읍니다.

● 特 徵 ●

- ① 어지나 어딘이도 重量感을 느끼지 않고 손쉽게 여닫을 수 있습니다.
- ② 녹슬지 않는 特殊塗膜...
- ③ 밀닫, 事務所 出入門, 車庫, 賣店等, 内部窄直을 안하는 店舗等に 完全한 盜賊防止 效果
- ④ 2~3秒에 여닫을 수 있으므로 火災 時 人命의 財産의 被害를 最大限 減을 수 있습니다.
- ⑤ 新築, 既存建物을 不問하고 特殊의 設計와 施工으로 出入口 器構造 最大限 利用할 수 있습니다.
- ⑥ 外觀도 現代感이 넘쳐 建物을 더 욱 아름답게 해주며
- ⑦ 廉價한 아파트 서어비스로 幸仕합니다.

아름답고 손쉽게 여닫을 수 있는
한일 스프링 샷다

韓一建材工業株式會社 ■ 大邱代理店 ■
 住所: 서울特別市永登浦區本洞 455 事務所 TEL. 3-2682
 電話: 69-1744-5336 工場 TEL. 4-2291

[그림 2] 한일 스프링 샷다 광고, 《동아일보》, 1969.1.17.



[그림 3] 군청색 셔터



[그림 4] 무지개 샷다

‘한일 스프링 셔터’ 광고[그림 2]는 “아름답고 손쉽게 여닫을 수 있”어 “여자나 어린이”도 사용하기 편하다고 강조하며, “녹슬지 않는 특수 강판”과 “도난 방지 장치”, “화재 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대한 막”아준다는 점을 부각했다. 또한 “외관도 현대”적이라는 점에서 상품화된 디자인을 강조했다. 다른 광고에서는 “완전한 도난 방지 장치”와 “아름답고 현대적인 감각”³⁾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의 셔터는 철로 만들어졌을 뿐 어떠한 무늬도 없었다. 흑백 이미지이지만 확인할 수 있는 초기 광고 속 셔터는 무늬 없는 단색이었다. 이러한 민무늬 셔터가 과연 어떤 면에서 아름답다고 광고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3. 알루미늄 셔터의 도입과 색상 변화

1960년대의 초기 셔터는 주로 균청색 철재로 제작되었으며, 현재도 일부 오래된 가게에서 균청색 셔터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빨강, 노랑, 파랑 등 다양한 색상의 셔터는 언제부터 등장했을까? 함석 덧문과 균청색 철재 셔터[그림 3]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녹이 쉽게 슬고, 무겁고 불편하여 미관상 좋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0년대에는 알루미늄 셔터가 도입되었다.

알루미늄 셔터는 철재보다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다양한 색상으로 도색할 수 있어 건축미를 크게 향상할 수 있었다. 또한, 서울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아름다운 도시 경관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가로환경 정비조합 지침을 통해 “덧문, 셔터 등은 산뜻한 색깔로 단장”⁴⁾할 것을 권장했다. 이 정책에 따라 알루미늄 셔터는 다양한 색상으로 제공되기

시작하였고, 이는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시각적 매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⁵⁾ 따라서 알루미늄 셔터의 색상 변화는 단순한 미적 개선을 넘어 도시 환경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배경과 기술적 발전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무지개 샷다’[그림 4]는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 왜 만들어졌을까? 1980년대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서울 시내는 격조 높은 상가로 조성하기 위해 “청회색 위주의 셔터 색상을 미색 계통으로 칠”⁶⁾해 밝은 분위기로 바꾸고, “예술성이 높은 광고물을 설치토록 유도”⁷⁾했다. 이는 시장 내부도 마찬가지였다. 광장시장의 경우에는 환경정비 및 시장 주변 일반상점가의 환경개선사업을 펴도록 했으며, 칠이 벗겨진 셔터에도 페인트를 다시 칠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⁸⁾ 이러한 환경 미화 작업의 일환으로 서울 시내 전체 거리의 도색작업을 진행한 결과, 1988년도에는 거의 모든 시설물이 새로운 색상으로 단장되었고 종전의 단일 색상에서 4-5가지의 다채로운 색상을 사용하게 되었다.⁹⁾ 이 과정에서 노후한 전통시장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셔터에도 큰 변화가 있었고, 이 시기에 ‘무지개 샷다’가 등장했다. 시장 주변의 공업사와 셔터 전문업체, 시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무지개 샷다’의 출시 시기와 디자인 컨셉, 색상의 기능성 등을 조사한 결과, 주된 이유는 단순히 “예뻐서”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초기에는

5) 「알루미늄셔터 세화알미늄개발」, 《매일경제》, 1981.4.22.

6) 「명동, 상가로 재정비」, 《매일경제》, 1983.3.7.

7) 「네온사인 권장... 밤거리 밝아진다」, 《동아일보》, 1988.4.6.

8) 「도심권 상가래 질서 확립」, 《매일경제》, 1983.7.22.

9) 「거리색깔 밝아지고 있다」, 《조선일보》, 1988.7.2.

3) 「한일스프링샷다」, 《동아일보》, 1969.2.25.

4) 「너절한 간판-건물-점포 정비」, 《조선일보》, 1973.8.15.

기본 색상만으로는 맛있게 느껴져 색상을 추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즉, ‘무지개 샷다’의 도입은 기능적 이유보다는 미관상의 변화, 즉 심미적인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필자는 ‘무지개 샷다’의 색상 변화를 단순한 미관 개선을 넘어 한국 전통의 오방색과의 연결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무지개 샷다’는 단순히 도시의 미관을 개선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국 전통문화의 색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도시 환경 속에서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조화가 우리의 일상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4. 오방색과 전통 신앙이 반영된 셔터 디자인

왜 셔터 디자인에 적색, 청색, 황색이 사용되었을까? 시장에서 삼점 주인들과 대화해본 결과, 대부분은 ‘무지개 샷다’의 출현 시기와 색상 선택 이유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없었다. 셔터 제조업체들도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이 삼색 조합은 전국적으로 확산하였고, 미관상 이질적이지 않았다. 필자는 이 현상이 한국인의 색채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셔터 디자인에 한국의 전통색이 반영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이는 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만의 색 배합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앞서 설명한 셔터의 주요 기능인 도난 방지, 인명과 재산 보호, 화재 안전 그리고 미적 개선을 한국 민속신앙과 연결해 살펴보면, 셔터는 단순한 물리적 장치를 넘어 전통적 신앙에 기반한 보호 장치로 이해될 수 있다. 한국의 전통 신앙에서는 신을 크게 선의(善意)와 악의(惡意)로 나누며, 선의는 하늘과

땅, 일월성신 등으로 표현되고 거룩함과 긍정적인 힘을 상징한다. 반면, 악의는 잡귀, 원귀, 원령 등으로 구성되어 저주, 재앙, 질병의 원인으로 여겨진다.¹⁰⁾ 이러한 신앙에서 색은 문화와 습관에 따라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우리나라의 문화의 상징성을 표현하고 있는 색이 바로 ‘오방색’이다. 한국의 전통 색상인 오방색은 민족 고유의 색채 감성을 띠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¹¹⁾ 오방색은 우주의 조화를 담아 음양오행의 의미를 생활 속에 부여했다. 각 색상의 상징적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 적(赤)색은 태양과 밝음, 고귀함을 의미하며, 벽사(辟邪)의 주술적 의미를 내포한다. 붉은색은 전통적으로 악귀가 싫어하는 색으로 여겨져, 액운을 막고 악귀를 쫓는 주술적 상징이 있다. 둘째, 청(靑)색은 나무와 하늘, 물, 젊음을 상징하며, 잡귀를 물리치고 생명의 기운을 소생시키는 색으로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황(黃)색은 신덕(信德)을 드러내며 안정과 번영의 상징성을 가진다.¹²⁾ 이와 같은 전통적 신앙과 민속적 관습이 셔터 디자인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셔터는 한국의 전통 신앙과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여, 물리적 안전을 제공하면서 주술적 의미를 지니는 보호 장치로 기능한다. 무지개 색상의 셔터는 한국인의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 오방색에 대한 색채 의식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이로써 한국만의 독자적인 셔터 디자인이 탄생했다. 자칫 맛있게 보일 수 있는 은색의 알루미늄 셔터에 색을 더한 것은 한국인 특유의 색채감각을 발휘한 결과라 할 수 있다.

10) 한국문화상징사전편집위원회, 『한국문화 상징사전』, (동아출판, 1996)

11) 김희성, 『아파트 주거공간의 오방색 적용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9), p.28

12) 위 논문, pp.35-37

5. 나가며

셔터에 적색, 청색, 황색의 삼색 조합이 사용된 것은 단순히 미적 개선을 넘어서 한국 전통의 오방색과 깊은 연결성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인의 색채감과 전통 신앙이 결합한 결과물로, 일상생활에서 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무지개 셔터는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는 한국 사회의 독특한 모습을 반영하며,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셔터는 원래 방어 장치에서 출발했으나 시대와 물질문화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으로 진화해 왔다. 예를 들어, 을지로 셔터갤러리와 같은 사례¹³⁾는 셔터가 어떻게 예술적 표현과 문화적 의미를 담아내는 매체로 변모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 필자는 셔터 디자인의 변화가 한국 전통 색채인 오방색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는 단순히 시각적 아름다움을 넘어 전통적 신앙과 문화적 상징을 담고 있음을 밝히고자 했다. 왜냐하면 적색, 청색, 황색의 사용이 한국인의 색채 의식과 연결되어 있고, 나아가 셔터 디자인에 독창적이고 문화적인 깊이를 더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셔터의 발전은 기능적 개선과 함께 한국의 전통 색채와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물질문화의 변화에 따라 셔터는 단순히 문을 여닫는 도구를 넘어, 우리 일상에서 깊숙이 자리한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요소로서 한국 사회의 독특한 정체성과 미적 감각을 잘 나타내고 있다. 📌

13) 임종빈, '가게 셔터의 놀라운 변신, '을지로 셔터갤러리', 서울특별시 시민기자 뉴스,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0562>, (2021.2.22.)

참고문헌

- 김희성, (2019), 『아파트 주거공간의 오방색 적용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문은배, (2012), 『한국의 전통색』, 안그라픽스
- 한국문화상징사전편집위원회, (1996), 『한국문화 상징사전』, 동아출판
- 「'샷다' 를 三分之二(삼분지이)를 내렸다는데…」, 《조선일보》, 1960.12.19.
- 「한일스프링샷다」, 《동아일보》, 1969.02.25.
- 「너절한 간판-건물-점포 정비」, 《조선일보》, 1973.8.15.
- 「알루미늄셔터 세화알미늄개발」, 《매일경제》, 1981.4.22.
- 「명동, 상가로 재정비」, 《매일경제》, 1983.3.7.
- 「네온사인 권장… 밤거리 밝아진다」, 《동아일보》, 1988.4.6.
- 「도심권 상거래 질서 확립」, 《매일경제》, 1983.7.22.
- 「거리색깔 밝아지고 있다」, 《조선일보》, 1988.7.2.
- 임종빈, 「가게 셔터의 놀라운 변신, '을지로 셔터갤러리」, 서울특별시 시민기자 뉴스,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0562>